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 받는다

보건복지부, 만성간경화·폐쇄성호흡기질환자도... 중앙호스피스센터로 국립암센터 선정

앞으로 말기암 외에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환자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공청회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후 하위법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말기 환자 진단 기준 ▲법률 시행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구성 및

운영규정 ▲연명의료계획, 호스피스 신청 등 주요사항에 대한 법정서식 등이 담겼다.

우선 말기환자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진단하도록 했다.

기준은 ▲임상적 증상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 여부 ▲약물 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중증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 기준 내용을 반영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로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등의 관련된 지정 기준·절차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가 맡아 그동안 암 환자들을 상대로 호스피스 사업을 운영해온 경험을 살려 인력 교육·훈련, 호스피스 연구,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 정책을 주도하게 된다.

국립암센터는 8월부터 호스피스전문기

관 운영을 원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정식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비(非) 암 질환은 생존기간이 길고 질환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호스피스 병동에서 서비스를 받는 '입원형 호스피스' 외에도 일반병동에 입원하거나 가정에서 지내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문형 호스피스', '가정형 호스피스' 모델을 개발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문형은 서울성모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의 의료기관에서, 가정형은 서울성모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이주대학교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의 의료기관에서 시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1년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후 바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되어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 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검토·미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 날인 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 자원봉사자, 환자 및 그 가족을 격려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명의료결정법 하위법령에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연명의료 중단과 관계된 개정사항도 담겼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말한다.

연명의료를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공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련하고,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 서식도 담겼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을 선정했으며, 내년 2월부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뉴스

국내 최초 개발 수술 로봇시스템

식약처, '레보아이' 허가
수술시간 단축 등 큰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수술 로봇시스템 '레보아이(Revo-i)'를 허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레보아이'는 환자 몸에 최소한의 절개를 한 후 로봇 팔을 몸속에 삽입해 의사가 3차원 영상을 보며 수술하는 시스템으로 담낭절제술, 전립선절제술을 포함한 일반적 내시경 수술 시 사용된다.

특히 이번 제품은 4개의 로봇 팔을 이용해 수술 부위를 파악하고 절개·절단·봉합할 수 있다. 내시경수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된 제품으로는 미국 인튜이티브서지컬이 개발한 '다빈치'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다.

그동안 허가된 수술 로봇은 수술부위 위치를 안내하거나 무릎, 인공 엉덩이 관절 수술시 뼈를 깎는 데 사용되는 제품 등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수술용 로봇은 식약처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움' 지원 대상 제품으로 임상시험 설계·수행부터 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제품화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했다.

'신개발 의료기기 허가도움'은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신개발의료기기, 첨단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허가까지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제도다. 현재 이 제도를 통해 23개 제품이 허가됐으며 53개 제품을 지원 중이다.

수술용 로봇은 3차원 입체영상을 통해 수술부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절개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을 바탕으로 시장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전 세계 로봇 시장은 매년 12.1% 성장해 2021년 9조641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수술용 로봇 국산화 성공으로 수입 대체효과를 통해 내시경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수술시간 단축, 출혈량 감소 등으로 환자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한미 연구진 '유전자 변이 교정 성공'에 전 세계 극찬... "획기적·신기원 이정표"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이른바 제3세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인간배아의 유전자 변이를 교정하는데 성공한데 대해 전 세계의 격찬이 쏟아지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유전체 교정연구단 김진수 단장 연구팀은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 대학(OHSU)과 중국 연구팀 등과 함께 인간배아에서 비후성 심근증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CRISPR Cas9)로 교정하는데 성공했다고 3일자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일자(현지시간) 관련뉴스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획기적(breakthrough)'인 성과로 높이 평가했다. "과학자들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 배아를 편집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를 교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NYT는 이를 "중요한 이정표"로 표현했다. 또 환자 치료에 실제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유전자 편집을 통해 다양한 유전병으로부터 인간을 구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유전자 조작에 대한 우려 역시 현실화 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압 연구자인 리처드 하인스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를 '엄청나게 획기적인(a big breakthrough)' 성과'로 극찬했다. 그는 "유전자 편집에 대한 우려는 항상 제기됐으며 여전히 그 점



은 사실이지만, 곧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적 장애물이 제거된 만큼 이제는 사회적으로 유전자 기술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위싱턴포스트(WP)는 "미국에서 유전자 편집이 이뤄지는 이번이 최초"라면서, 의학의 역사에 있어 "논쟁적 새 시대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오리건대 연구팀은 이끈 슈크라트 미탈리포르트 교수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구가 유전자 편집의 기초

적인 단계를 이룬 것임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유전자)도 편집하거나 변형시키지 않았으며, 우리의 연구프로그램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고치는 길로 향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국 가디언도 '랜드마크' '신기원(Groundbreaking)' 등의 단어를 동원해 이번 연구 성과를 극찬했다. 특히 "인간 배아가 중국 이외에서 편집된 계보를 갖게 되는 이번이 최초"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중국 광둥성 중산대 연구팀은 인간 배아로 유전자 편집 실험을 한 결과를 온라인 과학잡지 프로테인&셀에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연구 과정에서 여러 윤리적 문제가 제기돼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해 4월에도 중국 연구팀은 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해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해 HIV 저항성 도입 여부를 실험했다고 밝혔다.

영국 BBC는 "과학자들이 최초로 치명적인 심장 유전병을 유발하는 잘못된 DNA로부터 배아를 성공적으로 해방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수 세대에 걸쳐 유전되는 약 1만건의 장애들(disorders)을 막는 문이 열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DNA 편집의 황금시대가 도래"하게 된 데에는 불과 2년 전인 2015년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신기술이 등장하게 된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뉴스

특허청, 지재권 위반 성형외과 무더기 적발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방법은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시술에 대한 특허등록 광고는 허위입니다."

특허를 받지않고 특허등록 제품이나 시술로 허위광고를 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의료기관의 지재권 침해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특허청이 기회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들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3일 특허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진료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 등이다.

또 근거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와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청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도 적발됐다. /뉴스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